



기독교대한감리회
교 육 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주일지침서



청년주일 목회서신	1
청년주일을 성수합니다.	2
제10차 감리교 청년주일을 소개합니다.	3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4
나눌거리	5
청년주일 가로세로 퍼즐퀴즈	6
청년연합 조직하기 “참~ 쉽조잉~”	7
참여할수 있는 연합회 프로그램	9
청년주일 기도문	10
청년주일 모범설교문1	12
청년주일 모범설교문2	18
제 52회기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감청)을 소개합니다~^^	24
조직된 감리교 청년연합 싸이클럽주소	28

청년주일 목회서신



오는 9월 27일(주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한 제10회 청년주일입니다. 제2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매년 9월 넷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바라기는 6,014 감리교회가 청년주일을 거룩히 성수함으로 써, 오늘의 주인이요 내일의 주역인 청년들을 향한 커다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년선교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과 열정을 뜨겁게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엡윗청년회를 조직하여 뜨거운 신앙으로 교회와 민족의 내일과 희망을 가꾸어 왔습니다. 청년주일을 지키는 일은 바로 청년처럼 건강한 몸과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려는 고백입니다.

청년없이 교회의 내일이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지금은 청년 세대에 대한 선교적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교회적 관심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젊은이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고, 청년세대에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어우러지고, 연륜과 패기, 전통과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으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교회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의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감리교회는 청년주일을 지킴으로써 초대교회와 같이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을 회복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열심히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감리교회를 푸른 교회로, 푸른 신앙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10회 청년주일과 같이 하셔서 감리교회 청년부흥의 전기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9년 9월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 규 학



“청년 주일”을 성수합시다!

김두범 목사(교육국 총무)

감리교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6,000 감리교회와 특별히 청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넷째 주일(27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한 “청년 주일”로서 청년들로 하여금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고 좋은 인격을 함양함으로 하나님 나라 실현과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청년이 되도록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전국 감리교회가 지키는 특별 주일입니다.

감리교 청년 선교의 역사를 보면 1897년 엽윗청년회에서 시작되어 일본 식민 제국주의의 통치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 하였으며,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6.25전쟁 후에는 주님의 관심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일하며,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산 제물로 희생하면서 시대적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들어 수많은 청년들이 신학교로 몰려들면서 엄청난 감리교 목회자가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감리교회 자랑스런 브랜드와 성장을 위하여 청년으로서의 뜨거운 신앙의 기개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넘어서면서 기술정보화의 급속한 발달,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지상주의를 표방한 자기중심적 가치기준,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의 다문화 환경으로 인한 자기 정체성과 민족성의 파괴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의 도전 속에서 영적 정체성의 혼란과 붕괴로 많은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좌충우돌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1,12)

전후방이 따로 없는 살벌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부디 감리교 청년주일을 통하여 담임교역자는 물론, 온 교우들의 특별한 관심과 기도 속에서 청년들을 다시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우리 감리교회의 밝은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하나님의 세계화를 위하여 청년들을 독려하는 말씀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설교와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기념하는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 날을 계기로 청년들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와 더 큰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살아있는 청년들의 믿음으로 교회의 가까운 장래가 더욱 든든해지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넷째 주일(27일)을 “청년 주일”로 지킵시다!



제10차 감리교 청년주일을 소개합니다.

* 목적 : 감리교 청년주일을 지키도록 한다.

* 목표 : 청년주일을 알리고 홍보한다.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애쓴다.

* 일시 : 2009년 9월 27일(9월 넷째주)

* 주제 : 주님과 함께 행하는 생명공동체, 감리교 청년 “생기 팍팍”

* 주제성구 : 너 사람이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8절)

*취지와 목적

1897년 엽윗청년회에서 시작된 감리교 청년선교의 역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조국의 독립과 민중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한 자랑스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청년들의 헌신과 열정적인 신앙이 있기에 오늘날 한국감리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주일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가 보존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결단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청년선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는 청년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지위 향상과 청년선교 활성화를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1999년 12월 13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매년 9월 넷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제정하여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10차를 맞이하는 감리교 청년주일이 청년들을 위한 주일로 감리교 각 교회에서 함께 홍보되어 지켜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 9월 27일 주일 대예배를 청년주일에배로 드려주세요,
;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선교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주일 대예배시 청년주일 기도문을 사용해 주세요.
;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 청년주일 동영상을 틀어서 함께 감상해주세요.
- 청년주일 포스터를 부착해 주시고 9월 넷째주가 청년주일임을 알려주세요.
- 청년주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침서에 있는 가로세로 퍼즐을 풀어서 감리교청년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3층 청년회 전국연합회)
- 청년주일 홍보용 동영상, 청년주일 지침서, 각종 자료들은 www.kmc.or.kr로 들어가서서 팝업창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회원들을 격려하는 애찬의 시간을 준비해 주세요.
- 청년들의 생활과 신앙의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세요.
- 청년주일 예배시 나온 헌금은 개교회 청년회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청년주일 헌금의 일부를 청년선교정책과 청년연합활동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청년회 전국연합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연합회로 보내주신 청년선교헌금은 지역연합회 활성화와 청년지도력육성, 국제지도력 육성에 쓰여집니다.

헌금 보내주실 곳 [우리은행 : 142-422823-13-001(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나눌거리

1. 청년백서

감리교 청년들의 신앙실태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한 책입니다. 청년들의 신앙상태와 고민들, 청년선교정책에 필요한 청년들의 욕구를 조사해놓은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을 이해하고 개 교회 청년선교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및 신청 : 02-399-2086(감리교청년회) / 권당 5,000원 / 발송비 무료

2. 임원지침서

감리교 연합회 임원들을 위한 임원지침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실제 연합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지도력향상, 회의진행, 임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담아놓은 책입니다. 더 나아가 감리교인으로서의 존 웨슬리목사님의 삶과 신학을 통해 보는 감리교정신을 배우고 한국감리교의 역사를 실어서 더욱 감리교의 정산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용: 임원의 역할 / 회의 /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각급(연회/지방회)연합회 일반회의 규칙 / 촉진자로서의 회의진행법 / 연합회사업과 행사 추천 / 즐거운 연합회 만들기 Tip / 감리교의 역사 / 한국감리교의 역사 / 감리교 청년회전국연합회 소개

※문의 및 신청 : 02-399-2086(감리교청년회) / 가격 : 무료 / 발송비 부담

3. 감청에서는 격월로 감청 소식지인 '그루터기'를 발행합니다.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사무국(02-399-2086)으로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1		3		4		6		7	8
								9	
2				5					
								10	
	11		12		13				
					14		15		
	16								
						17			23
18		19		20					
		21				22			

※ 정답은 맨 뒷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가로열쇠〉

-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사람. 독립○○○.
- 자신의 능력이나 존재감에 대해 스스로가 만족하고 남들에게 부끄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마음가짐
- 교회에서 해마다 행하는 축일 및 행사를 일정한 달력.
-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직업을 뜻하는 말.
- 에 감사하라.
- 외과적 수단으로 신체의 어떤 부분을 고치거나 만드는 일. ○○수술.
- 감리교청년회의 전신으로 1897년 5월5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창립된 청년단체이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의 고향의 이름과 관련 있다.
- 오륜(五倫)의 하나.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음을 뜻하는 말.
-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학자. 노나라 사람으로 여러 나라를 주유하면서 인(仁)을 정치와 윤리의 이상으로 하는 도덕주의를 설파하여 덕치 정치를 강조하였다.
-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하며 감리교본부 건물이 있는 곳. 촛불집회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 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관광지로 유명하죠. 특별히 '1박 2일' 팀의 촬영지로 동양의 산티아고라는 불리는 올레길이 있는 곳이죠.
-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라는 뜻의 불교용어로 모든 것이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세로열쇠〉

- 전쟁에 반대하며 그 위험을 제거하여 평화를 지키려는 대중운동.
-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대부하여 이자를 받거나, 그것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이윤을 내는 사람.
- 9월 27일(9월 넷째주)청년주일의 주인공은?
- 폭력을 쓰지 않거나 반대하는 것. 인도의 간디의 운동으로 유명하죠.
-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구속되고 준거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을 말하죠.
- 가로변이 세로보다 긴 사각형을 뭐라고 하나요.
- 정치적·사회적 단체나 그 책임자가 어떤 사안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나 문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단체의 ○○○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매년 9월 넷째주는 감리교 ○○○○
- 연합회의 모임을 대표하고 회의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직책.
- 선거인을 다른 말로 하면? 선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 민주적으로 되어 가는 것. 또는 그렇게 되게 하는 것. 5.18 ○○○운동.
- 교회의 공동체성. 사도신경, 거룩한 ○○○와 성도와...
- 전라남도에 위치한 광역시.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곳이죠.
-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혹은 논쟁. 청년실업○○. 이주노동자○○. 수학○○.
- 이 시간 다함께 ○○합시다. "사랑의 주님!..."
- 감리교의 창시자. 존 ○○○.

청년연합회 조직하기 “참~ 쉽조잉~”

현재 290여개 지방회중에 청년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30여곳을 넘지 못합니다. 많은 청년연합회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여전히 청년이지만 지방회의 목회자님들과 평신도단체의 선배님들, 청년들을 아끼는 모든 분들에 의해 청년들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조직되어 있는 곳도 잘 조직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연합회 조직하기 “참~쉽조잉~ ◀◀◀

Step 1. 청년들끼리 만나게 하라.

청년들이 스스로 연합 모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크고 작은 자리를 마련하여 지도력이 될 만한 청년들이 만나 함께 서로를 알고 그리스도안에서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교회 목회자님들께서 사랑의 큐피트가 되어 청년들간의 만남과 교제를 주선해주세요~^^

Step 2. 비전을 심어주라.

청년들이 연합회를 통해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목회자님들의 다양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연합모임을 논의하고 서로의 비전들을 연합회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의 꿈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을 엮어내어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Step 3. 공식화하라.

지방회에 속한 청년교회들을 연합예배를 통해 한 자리에 모여 총회를 가집니다. 임원을 선출하고 필요한 회칙을 수정하여 제정한 뒤,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직분을 줍니다. 새로된 임원들이 처음 시작할 경우는 감리교의 구조나 역사에 대한 감리사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신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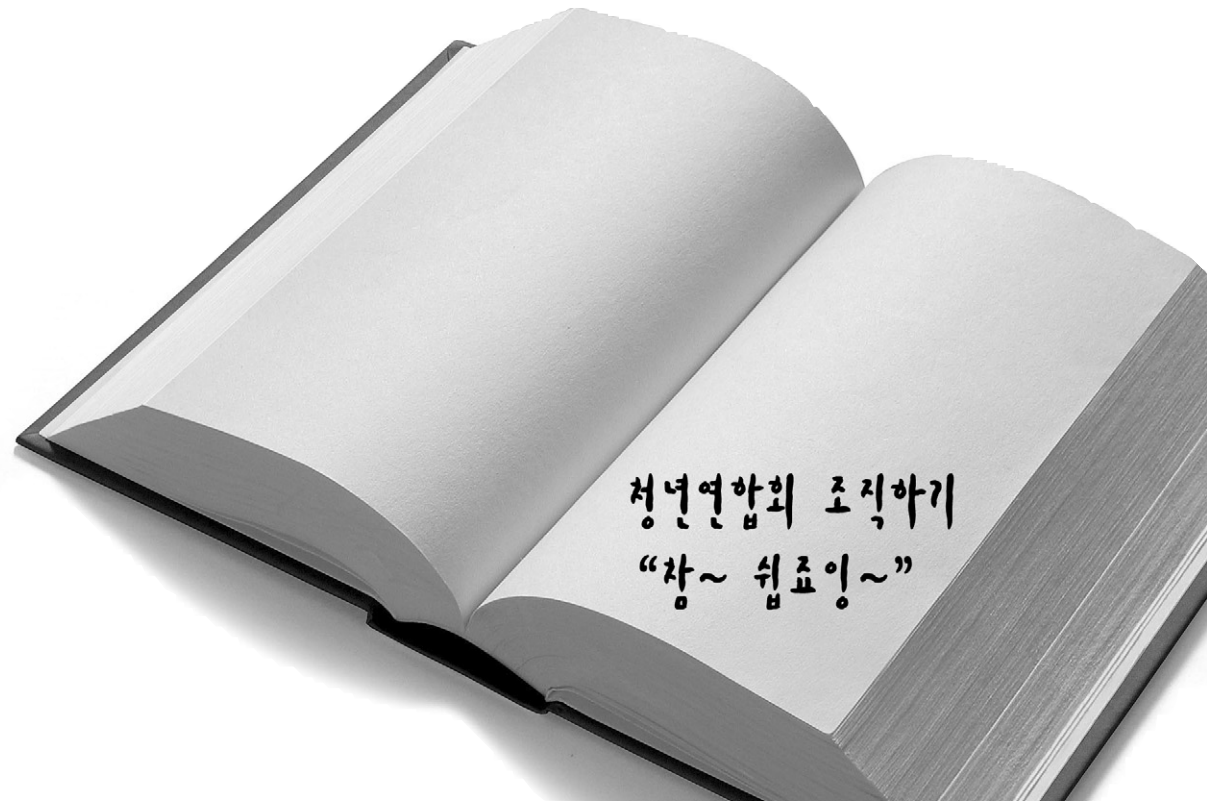
Step 4.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주라.

처음 연합회 활동을 하게 되므로 연합회의 사업기획이나 진행, 예산 결정, 후원금 받기, 청년들 모아내기 등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지방회에서 청년들의 연합활동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활동에 필요한 조안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Step 5. 다른 청년연합회와 연결시켜주라.

연합회가 어느정도 자리잡히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합회의 활동을 직접 보고 도전을 받아 자체적인 사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연합회의 모임인 청년회 전국연합회의 모임을 통해 회의, 사업진행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얻게 해주고, 청년정책에 필요한 자료들을 얻도록 연결해 줍니다.

연합모임을 통해 일어날 청년들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연합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땅에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교회들이 선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참여할수 있는 연합회 프로그램

▷▷평화놀이◁◁

- 목표 : 청년들이 교회혹은 연합회 내에서 회원들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소통의 지도력을 경험하게 훈련하게 하여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상 : 개체교회 청년회, 청년연합회 모임
- 시기 : 수시로 섭외(*강사를 파송하여 1회 2시간, 4시간짜리 워크숍을 진행해 드립니다.)
- 인원 : 10명 이상
- 프로그램 예시

	활동 제목	진행
경청과 갈등/차이	자기소개 자리섞기	돌아가며 "나는 000옆의 ~~~한 000입니다" 태풍(Big Wind Blow)
	모서리게임	차이이해하기 예)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스킨십은 어디까지?
	스펙트럼	다양한 입장 들어보기 예)교복은 인권 침해이다 <->아니다.
	두마음 게임	선입견과 편견이 없다면 다양한 대안이 살아 숨쉰다. 예) 굶주린 수단의 어린이
	적극적 경청	경청 훈련을 통해 소통의 자세를 경험한다.
	추측하기	사실과 다른 추측이 얼마나 소통을 방해하는지 경험해본다.
신뢰구축	마음모의기	한 문장 말하기 "나에게 하루가 선물로 주어진다면"
	신뢰구축(팀빌딩)	침묵게임 동물만들기
	신뢰구축(팀빌딩)	그림그리기 : 도형설명하기
	신뢰구축(팀빌딩)	신문으로 탐쌍기
	성찰(배움)	대화:배움이 어떻게 일어날까 17분
	평가	손가락 그리기(평가)-10분 / (별을 붙이기)-3분

▷▷청년연합회 리더 훈련 프로그램◁◁

- 훈련 목표 : 각 교회 청년회 소속 청년의 개인성숙과 관계적 정체성을 위한 실천적 영성에 관련된 인격형성 (value/attitude-making)을 도와 대안적 미래의 삶을 구상하여 감리교 청년회의 연합지도력 형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소통, 화해, 능력부여, 협력적 지도력 등의 실제적 기술습득 (skills-practicing)을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공동으로 심화한다.
- 기간 : 1박 2일 2회
- 시기 : 전반기(5월) 하반기(10월) 각 1회
- 인원 : 선착순 12명

회차	주제
1회	평화와 그리스도 / 연합회의 즐거움 / 청년활동의 촉진자의 역할과 가치 / 촉진자와 컨테이너 만들기(가치,태도) / 컨테이너 만들기 기법
2회	회의진행 워크숍 / 소통훈련진행 워크숍 / 공동체훈련진행 워크숍



청년주일 기도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1)

창조의 하나님

세상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숨길을 불어넣어주시고,
그 어떤 존재 하나도 버려짐 없이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지켜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높음과 낮음, 그리고 귀함과 천함이 인간의 그릇된 가치로 굳어져버린 이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특히 오늘 청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을 묵상하고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청년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청년의 시기 3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실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역사의 어둠을 밝히는 선각자들로,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개척자들로
청년들을 사용하심을 기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과 열정보다는
내 일의 필요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굶주린 형제자매와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보다는
물질적 안락함과 화려함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맘몬과 편안함 앞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길에서 돌이켜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무더진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으시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흥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2:14)

산 소망이신 하나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모닥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 패배의식과 절망감을 불태워 거룩한 부흥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살림과 나눔이 일어나는 생명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바를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정의와 적을 끌어안는 사랑을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다 하시며,
세상은 우리를 정욕적이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흥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예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청년주일 모범설교문 /

제목: 청년이여, 위대함을 소망하라!

하정완 목사(꿈이있는교회 담임목사)

성경: 히브리서 11:1-2.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표준새번역)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기상변화를 예측하였음에도 가끔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당혹스러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그에 의하면 카오스란 어떤 체계가 확고한 규칙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서 먼 미래의 상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의 양식도 불확실한 가능성을 추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확실하고 명확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3S로 불리워지는 Sex, Screen, Sports는 모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들입니다. 더욱 찰라적인 산업들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같은 삶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적 가치에 의해 움직여져야 하는 교회들이 부수적 가치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역시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미 예수의 길에서 벗어난 교회와 크리스천이 등장하였습니다. 화려한 옷, 근사한 차, 집, 연봉 그리고 으리으리한 교회에 이르기까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왜곡되고 물질적 기준으로 포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유혹이 시달렸습니다. 특히 서구교회가 소위 미개한 국가들을 선교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우월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삶의 질의 문제를 따지고 생활 환경을 따졌습니다. 복음보다는 서구 문화적 삶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문화식민지배 형태로 등장하였고 기독교도 우월한 문화의 한 형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접근은

매우 중요한 복음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간디가 인도 아쉬람에서 있었던 선교사대회에 주제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인도에서도 선교사들은 서구 문화는 우월하다는 문화우월주의의 바탕에서 먼저 계몽해야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놓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과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중에도 바른 선교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감리교 선교사이면서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쓴 스탠리 존스 선교사와 “젊은 인도”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었던 앤드루 C F 존스 선교사 같은 이들은 경제적 힘이나 문화적 우월성이란 편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른 길에 서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간디는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두 사람을 예로 들으면서 매우 강력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목사들 중 앤드루스와 스탠리 존스 같은 이가 말하는 복음이 참 기독교라면 우리 인도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와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의 길에서 한 치도 이탈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 종교가 필요합니다. 산산수훈 이하의 종교는 지난 5000년간 지배해왔습니다. 인도를 구원할 종교는 유일하게 산산수훈에 나타난 예수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분명 어두워 보입니다. 카오스처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디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더욱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른 길에 서서 살아가는 크리스천과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예수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물질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이들이 볼 때는 참 힘든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는 소위 비참한 삶을 살기만 하였습니다. 물론 용감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삶은 비참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총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툼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 하였느니라”(히11:36-38)



무엇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이 살아온 이유는 절대가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가치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11:1)라는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이고 찰라적인 성공주의 같은 것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양식과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오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 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히11:13-14)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절대 가치였고,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은 소위 우리들이 바라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주심을 바라봄이라”(히11:24-26)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에서 말한 카오스 이론은 나비 효과와 함께 짝을 이룹니다.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카오스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비 효과를 발견하게되는데, 1979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발표장에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 주에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정체가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혀 앞에서 큰 사고도 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비효과'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들이 고속도로를 같은 속도(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한 대의 자동차가 무심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놓으면 그 뒤의 차들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겠습니까? 조사 결과,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놓은 그 지점에서부터 약 30km 뒤에서 달리고 있던 차들은 완전히 멈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려면 일정한 간격과 속도, 즉 앞 뒤차가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간격으로 30km 정도 이어져 있어야 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제자가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요인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들의 작은 나비 날개 짓이 바꾼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비효과의 핵심은 나비의 날개 짓이 아니라 토네이도를 만들어갈 모든 환경적인 조건과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카오스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개 짓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날개 짓입니다. 곧 순전한 믿음입니다. 나의 개인적 야심이나 이기심이 배제된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나비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린 나비의 날개 짓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날개 짓이 반드시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원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날개 짓 정도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무슨 계획을 기막히게 짰다고 해서 토네이도 같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새들백교회 이야기에서 영적 파도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파도를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파도 탈 준비입니다. 나비의 날개 짓이 존재해야 합니다. 저자씨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나비의 날개 짓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나비의 날개 짓이든, 심지어 근사해 보이는 독수리의 날개 짓이든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짓이 토네이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헌신을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날개 짓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대강 믿은 사람

다이어트를 해 보신 분은 경험하시겠지만 살이 빠지려는 순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아야 하는 때입니다. 더 먹고 싶은데 수저를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 귀찮아서 오늘은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시점 혹은 지쳐서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은 시점입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은 그 지점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적은 이유는 바로 그 꼭지점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잘못된 정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어려움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자신을 따르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바른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치의 핵심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대하11:17)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통치한 왕 다윗과 부강한 왕 솔로몬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남 유다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의 그같은 정치가 고작 삼년밖에(대하11:17)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년이라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정치에 남유다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대하2:1)졌습니다. 문제는 삼년 그 이후입니다. 르호보암은 삼년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삼년이라는 꼭지점에서 만족하고 포기하고만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하12:2)

르호보암은 꼭지점을 넘어가도록 동일한 마음과 계속성으로 걸어가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여하튼 애굽의 시삭왕이 쳐들어오면서 위기가 닥치고 예루살렘까지 위급하게 되자 그제서야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도움을 구합니다. 여기서 겸비함이란 자신의 계획으로 가득 찬 마음의 영역을 열어 하나님을 초청해 드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시삭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불완전함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대강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와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대하12:7)

완전히 구원하지 않으시고 대강 구원하신다? 그래서 남 유다가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이 공격당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간신히 멸망만을 면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강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강, 대충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르호보암은 시삭왕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대하12:14)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대충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경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한 삼년동안은 근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처럼 잘 되는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의 중간에 서서 자신의 편의를 따라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강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하나님의 대강 구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강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더욱이 무엇이 되고 싶다면 대충 믿고, 대충 헌신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위대함이 들어온다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서 위대해진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위대함이 그의 삶속에 들어온다.”

세익스피어가 남긴 말입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는 자신과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는 마지막 경우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위대함이 그의 삶속에 들어온다.” 대강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잘 못하고 태생도 좋지 못하고 지금도 한심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 계속 성실하게 걸어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느 날 위대함이”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어떤 충실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궁궐 한 가운데 있는 우물의 물을 전부 퍼내라고 말입니다. 그 명령은 정말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물물이 다 마르기까지 물을 길어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강하라고 말합니다. 하다가 왕이 어이없는 명령을 내렸기에, 이유도 없는 명령을 내렸기에 곧 안해도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신하는 충직하게 쉬지 않고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계속 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물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황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이지만 황금덩어리가 바로 “어느 날 임한 위대함”입니다.



청년주일 모범 설교문 2

제목: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 결정하라

차창규 목사(서울연회 성동지방 성민교회)

성경: 로마서 4장 18절-21절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백 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표준새번역)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한 강연회에서 자신이 외국인에게 들었던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찾는 법을 소개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알파벳 순서대로 각 글자에 숫자를 붙여줍니다. A에 1을 붙여주고 B에 2, C에 3, D에 4 이런 식으로 Z(26)까지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떤 단어 알파벳에 붙여진 숫자를 모두 더해 100이 되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MONEY), 권력(POWER), 지식(KNOWLEDGE)을 가진다면 100점짜리 인생이 될까요? 많은 돈을 가진다면? money는 72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진정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가지면? power는 77점입니다. "많은 지식과 학력을 가지면 될까요? knowledge는 96점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지식이 많다고 진정 100점짜리 인생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 즉 순간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태도 attitude' (A+T+T+I+T+U+D+E = 1+20+20+9+20+21+4+5=100) 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가 100점짜리 인생의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은 아니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험하는 돈의 위력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는 시대인 듯합니다. 돈으로 권력, 명예, 쾌락, 심지어 가짜 학위, 양심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맘몬니즘). 또한 현대인은 권력(power)을 경배하며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잡아보려고 때로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추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내게 권력이 없다면 나를 밀어줄 것 같은 ‘뺨’을 찾아 헤맵니다. ‘뺨’ 없이는 출세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 기댈 언덕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쾌락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음란 퇴폐문화, 감각문화, 사람을 우상시 하는 문화는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젊은이들의 이상과 비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지킬만한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삶을 마칠 때 후회하지 않을 100점짜리 인생은 없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딤후6:11)은 한 번 밖에 살수 없는 인생을 100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00점짜리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이러한 시대 풍조를 기꺼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이 어그러진 세대를 거슬러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히12:4) 죄악과 우상에 대항하여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화) 중세의 어느 한 성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줍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날은 찌푸린 하늘에 몹시 추운 날씨였고, 땅 위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문 밖에 나가 곡식을 한 움큼 쥐어서는 새들에게 뿌리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멀리 앉아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도 두려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나를 신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불신으로 떨고 있는 새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을 살도록 여러 가지를 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 100점짜리 인생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기독 청년들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할까요? 어떠한 태도가 우리로 100점짜리 인생 즉, ‘복이 되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이 되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니다.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약점들이 그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창12:2)” 말씀하시며, 그로 이 땅에서 복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으로써”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까지 복으로 살게 한 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A 하나님의 신실함에 모든 것을 거는 삶의 태도입니다.

히11:8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에게 너무 익숙한, 그가 너무도 잘 아는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걸은 것입니다(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삶의 모든 것을 ALL IN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과 머리를 적당히 사용하여 살 길을 준비하고 찾지 않았습니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 이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투자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망할 것을 염려하며 망하지 않기 위한 길을 찾는 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기 망하지 않는 투자의 길이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아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성공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길입니다. 100점짜리 인생, 후회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로 100점짜리 인생을 살게할 것입니다.

B (또한) 최선을 위하여 차선을 던져버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게 익숙하고 편안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뜻)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던져 버려야 합니다. 100점짜리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위하여 돈을 쫓고 계십니까? 기댈 언덕을 찾아 이러 저리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여

러분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라 확신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액세서리로 취급하며, 내 스스로 지식을 쌓는 것에 혹은 스펙(조건)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15:5)”

지금까지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들인 탑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들인 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무너진 공든 탑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없이, 우리가 쌓고 있는 공든 탑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 개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은 경성함은 다 허사, 헛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조건(친척, 아비, 본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신뢰하여 인생의 길을 떠났습니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쾌락, 권력, 지식, 돈이 우리로 성공으로, 100점짜리 인생을 살게 한다고 속고 있으며, 또한 서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인생을 길의 떠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한 아브라함, 그는 진정 복으로써, 100점짜리 인생을 살았습니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세상적인 조건들(친척, 아비 집, 본토)을 기꺼이 던져 버렸습니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뢰는 이삭마저도 희생 제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최선(The Best)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자기가 최선이라 생각했던 이삭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선(The Second Best)일 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망이었던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왜'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를 몰랐습니니다. 단지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그로 신실한 자의 아버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는 어디로 인도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이삭을 바쳐야 되는지 알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 맘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세상적인 환경들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나아갈 때 그는 복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으려 했던 세상적인 것들, 그것이 지식이든, 돈이든, 권력과 쾌락이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되기 위하여, 100점짜리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떠나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뿌릴 칠 수 없을 만한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젊은이들이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나아가십시오. 차선을 최선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준비해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차선(하나님 없는 권력, 지식, 돈, 쾌락)을 던져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하여 철저하고 엄격한 자기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는 경건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C **바랄 수 없는(한계상황) 중에도 꿈을 꾸는 삶의 태도입니다.(18)**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못 마땅하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재 상황이 원망스럽습니까? 때론 사람들에게 의하여 평가절하 되며, 때론 자기 스스로에 의하여 무가치하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청년실업대란’이라는 현실 앞에 꿈도 소망도 없이 오늘 죽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어 말라비틀어진 막대기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라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창12:2) ‘큰 민족’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현실을 넘어 큰 민족이라는 꿈을 꾸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며, 성도(거룩한 백성)이라 부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고전1:2)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 81:10).”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기도의 입, 소망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꿈 꾸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넘어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사43:18,19)

새벽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십시오. 상황을 믿지 말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어진 현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의 한 복판에서 꿈을 붙잡는 믿음의 태도로 서야 합니다.

닭과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풍이 올 때 닭은 자기 몸을 날개 속에 파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반대로 날개를 활짝 펴니다. 폭풍에 몸을 싣고 더 빨리 안전지대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한계상황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을 삶의 태도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상황의 폭풍 속에서 소망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날아가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십시오.

100점짜리 인생을 살게 하는 믿음의 태도는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부딪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라는 한계 상황에 부딪치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한계 상황에 부딪쳤으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한계 상황에 부딪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광야라는 한계 상황과 100살이라는 나이의 한계 상황에 도전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딪침의 신앙은 거창한 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질구질하고 괴로움이 많은 일상생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꿈꾸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으로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복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후회함 없이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이러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제52회기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감청)을 소개합니다~^^

* 주제 : 주님과 함께 행하는 생명공동체, 감리교 청년

* 주제성구 : 너 사람이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8절)

*전국임원

회장	김원열(동부)	위원장	고선경(여성위원장) 황지현(홍보통신위원장) 이이레(국제협력위원장)
부회장	박달래(서울), 이현숙(삼남)		
총무	이은영(서울)		
서기	박세현(중앙)		
사무국간사	하성웅(서울)		

감청 52회기 사업

I. 사업 및 행사

① 조직강화사업

개교회부터 연합회까지 활동하는 임원들을 위한 임원지침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임원으로서의 청년활동과 연합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고 실제 회의진행법, 회원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조직된 연회와 지방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② 연대사업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청년위원회(KCRP), CCA-Youth, EASY-NET, 재일한일기독교청년공동연수 프로그램, 아시아 감리교청년네트워크(AMYN)

③ 제4차 감리교 청년체험 수련회 '내 생애 완전 아름다운 일주일'

어려운 농촌의 이웃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도시청년교회와 농촌교회의 연결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처한 농촌교회를 찾아가 봉사하는 국내선교 프로그램입니다.

■ 활동내용 : 여름성경학교, 마을청소, 영정사진 촬영, 안마, 교회보수, 마을잔치, 농사일 거들기 등

■ 일시 : 2009년 8월 첫째주(농촌교회와 일정 조정 가능)

■참여가능 대상 : 1. 10~15명이 한 팀이 된 청년교회(8월 첫째주)

2. 개인참가자 혹은 감리교 소속 신학대학교(7월 첫째주)

3. 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역연합회 연합수련회로 연결 가능

④ 270주년 존 웨슬리 회심기념주일

감리교의 모태인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통해 이 시대 사그라져가는 웨슬리목사의 정신을 되살리고 청년들에게 감리교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 자료를 만들어 내어 홍보합니다.

⑤ 청년주일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주일을 만듬으로 청년이 교회의 주체로서 서가며 청년선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청년축제의 장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 언제 : 매년 9월 넷째주

■ 활동내용 : 1.모텔교회 예배(감독회장님과 전국임원들이 함께 하는 예배)

2.각 지역연합회 청년주일 연합예배

3.청년주일 자료집 배포

4.청년주일 홍보(포스터, 액정클리너, 영상등)

5.감리교 청년정책 토론회 등

II. 위원회 사업

① 홍보통신위원회-황지현위원장

문서와 웹진, 인터넷을 통해 감청의 소식과 앞으로의 동향, 정체성과 진행되는 사업, 행사 등을 알려내고 홍보하는 위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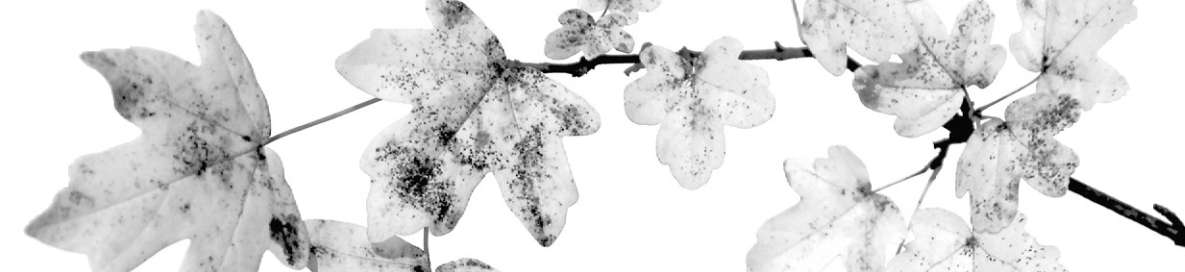
· 그루터기 : 격월로 발행되는 감청의 소식지로서 문서와 싸이클럽과 누리집의 웹진을 통해서 많은 회원들에게 알려지도록 합니다.

· 누리집 : 누리집의 개정을 통해 감청 회원들과 다른 방문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싸이클럽 : 감청 회원들의 편한 소통공간을 만들어 회원들간의 교류와 친교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 감청 리플릿 제작 : 감청의 1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합니다.

③ 국제협력위원회-황선웅위원장



감청이 연대하고 있는 국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협력 지도력들을 개발하고 키워내는 위원회입니다.

[국제사업]

■ 아시아 감리교 청년 대회 (Asis Methdist youth Network)

- 2009년은 아시아 감리교 청년들이 모여 2년에 한 번씩 있는 Conference
- 각 나라의 감리교 청년들이 모여 함께 시대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아픔을 공유하며 연대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시간
- 주요 참가국: 한국, 필리핀, 대만,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한국팀 준비 계획

① AMYN 준비팀에게 진행 과정을 수시로 확인 한다

② 국제협력위원회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민에 참여를 원하는 한국 청년들을 알아본다

③ 사전모임을 통한 한국 감리교청년 리더십 함양과 시대의식 조사

2009년 10월 27일~11월 1일 / 캄보디아 / 한국참가자 5명

[국내사업]

■ 영어스터디 모임

- 하나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 아래 행해지는 국제 사회 교류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 의 사소통 수단이 되는 영어공부 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감리교청년회 자체 스터디모임

시간 : 매주 하루 / 주중 저녁 시간

대상 : 국제위원, 참여를 원하는 감리교 청년 모두

장소 :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 본부 사무실

내용 : 회화, 토익, 영어성경읽기

④ 여성위원회-고선경위원장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위원회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내 성평등을 이뤄내고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 소모임- 여성주의로 숨쉬는 모임

〈목적〉 소모임을 통해 함께 소통하면서 여성주의숙의 '평등,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나눈다.

〈시기〉 09년 4월~11월, 한달에 2회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또는 금요일), 저녁 6시 (예정)

〈내용〉 여성주의를 독서와 토론방식으로 함께 소통하며 나누기

*독서를 통한 나눔

1. 여성주의와 관련한 책 읽기 / 2. 발제하기 / 3. 이야기 나누기, 공감하기, 토론하기

*사회이슈와 관련한 나눔

현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문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자료를 통해 함께 나누기

Ⅲ. 회의

① 전국임원회의 :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임원들과 함께 52회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합니다.

② 중앙위원회 : 지역, 연회연합회 총대들과 함께 전국연합회 52회기 사업을 결의합니다.

③ 정기총회 : 새로운 회기를 이끌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을 결의합니다.





조직된 감리교 청년연합회 싸이클럽주소

[전국연합회]

누리집 www.myfk.or.kr
 싸이월드 <http://club.cyworld.com/MYF2006>
 전자우편 myfkorkr@empal.com
 연락처 02,399,2086 / 2170

[서울연회]

서울연회 <http://club.cyworld.com/myfseoul>
 중랑지방 <http://calvarykumc.cyworld.com>
 성북지방 <http://scy-jesuslove.cyworld.com>
 종로지방 <http://jongchung.cyworld.com>
 은평동지방 <http://club.cyworld.com/eunpyungyouth>
 강북지방 <http://club.cyworld.com/YMOK>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http://club.cyworld.com/awakemethodist>
 구로지방 <http://club.cyworld.com/gurounit>

[경기연회]

화성지방 <http://club.cyworld.com/hsmc21>
 남양지방 <http://club.cyworld.com/NYF1004>

[중앙연회]

포천지방 <http://club.cyworld.com/vision06>
 이천 중앙지방 <http://club.cyworld.com/2000recovery>
 광주동지방 <http://club.cyworld.com/MGJRUK>



puzzle Quiz

평		자	존	감		비	정	규	직
화		본		리		폭		범	사
운	동	가		교	회	력			각
동				청				설	형
	엠펙	윗	청	년	회			명	
			년		장	유	유	서	
	민	주	주	의			권		
	주		일			공	자		웨
광	화	문		기	독	교			슬
주		제	주	도		회	자	정	리

(정답)

[삼남연회]

제주지방 <http://myfjeju.cyworld.com>
 부산동지방 <http://club.cyworld.com/bdgc>

[동부연회]

철원서지방 <http://club.cyworld.com/cwyu>
 원주동지방 <http://jesusandpeople.cyworld.com>

[중부연회]

주안지방 <http://club.cyworld.com/juchung>

[충북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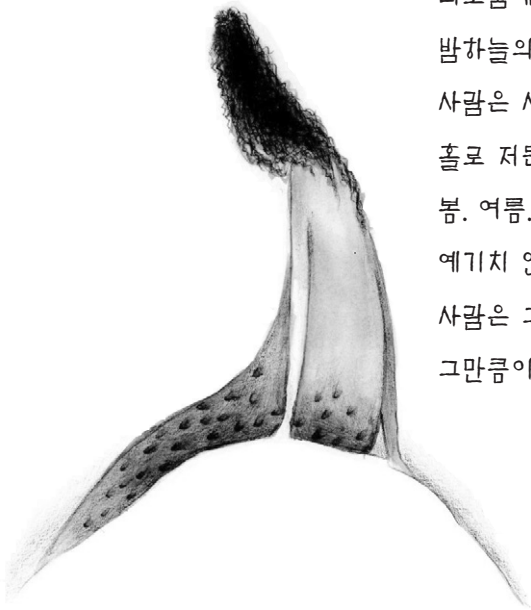
충북연회 <http://club.cyworld.com/recover012>



사람은 사랑할 만큼 산다.

—박용재—

사람은 사랑할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할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할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할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할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할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낫달을 사랑할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할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을 아스라히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할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할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사랑할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퍼낸날 2009년 8월 25일

퍼낸이 이은영

역은이 제52회기 감리교청년회

퍼낸곳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주 소 서울 중구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3층

연락처 02.399.2086 / 2170, FAX 02.399.2199

누리집 www.myfk.or.kr, 전자우편 myfkorkr@empal.com